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및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된 제한적 대결 상태를 냉전이라고 한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냉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냉전의 발발 시기와 이유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그 연구의 결과를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구하는 와중에 냉전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봉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결과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비판을 가한 ㉡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전후 세계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쟁 중에 급증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얻기 위해 세계를 개방 경제 체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므로 미국 정책 수립의 기저에 깔린 것은 이념이 아니라 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으므로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수정주의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오히려 미국이 유럽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했고, 소련은 이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인 ㉢ 탈수정주의는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절충적 시도로서 냉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냉전은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만 냉전을 보아서는 안 되며 안보 문제 등도 같이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련의 목적은 주로 안보 면에서 제한적으로 추구되었는데, 미국은 소련의 행동에 과잉 반응했고,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충적 시각의 연구 성과는 일견 무난해 보이지만,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지만, 중심적 경향성은 존재하고 이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본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주의에 따르면 소련의 팽창 정책은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수행된 것이었다.
- ②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적 동기가 냉전을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③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 정책은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 ④ 탈수정주의 출현 이후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보다 구체적 정책 연구가 강조되었다.
- ⑤ 탈수정주의는 절충적 성향을 가져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27. <보기>의 (가)~(다)와 부합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이 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보가 더 위태롭게 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부재한 곳에서는 소련이 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미국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추구했다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은 세계 철강 총생산량의 54%, 소련은 12%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는 미국이 49%, 소련이 12%였다. 이런 예들은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지녔다는 것을 알려 준다.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04-6평 33~37번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국가의 힘은 한 국가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힘의 크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힘이 국가 간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현실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위 강대국과 개도국의 협상에서는 강대국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강대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으로 개도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입장은 이와 다르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의 구조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강대국과 개도국이라는 일반적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협상의 주제와 관련된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이란 협상 테이블에 오른 아주 구체적인 협상의 대상과 관련된 힘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힘은 협상 대상과 관련된 자원(resources), 즉 해당 산업의 규모·고용·국가 경제상의 위치·상대국에 대한 시장 접근도 등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강대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개도국보다 월등할지 모르나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쿠바보다 힘센 나라이지만 쥘련의 생산에 있어서는 쿠바보다는 ㉠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고무의 생산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에 떨어진다.

협상의 절차적인 면이란 협상의 전술을 의미한다. 협상의 전술이란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 협상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연기하기, 다른 협상 의제와 연결시켜 처리할 것을 주장하기, 자국 내부의 사정을 내세워 호소하기 등과 같은 방법을 의미한다.

구조와 절차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은 “협상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구조적 요소로서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과 절차적 요소로서의 ‘협상 전술’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에 따라 약소국도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스 로버트라는 학자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한 바 있다. 그는 자원과 전술을 적절히 조화시킬 경우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협상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적 입장대로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자유주의적 입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과 강력한 전술은 단지 실제 협상에 임하는 협상가의 개인적 능력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협상 주제와 관계된 힘과 협상의 전술은 협상에 임하는 국가가 자신의 내부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 혹은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요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협의 과정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③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론을 대비해 가며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를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다.

34. ㉠의 쓰임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그는 발을 헛디뎈서 구덩이로 떨어졌다.
- ② 이미 그 일에 정이 떨어진 지 꽤 되었다.
- ③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④ 그의 실력은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 ⑤ 그 성이 적의 손에 떨어졌다는 전갈이 왔다.

35.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기>와 같은 협상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보 기>

약소국인 B국은 강대국인 A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수출하여 A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A국에서는 이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자국내에서 이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어 B국과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 한다.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통상 협상에 임하였다.

- ① B국은 약소국이므로 불리한 협상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② B국은 협상 전술을 잘 구사한다면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③ B국은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을 키우면 자국의 뜻대로 협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 ④ B국은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으므로 절충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 ⑤ B국은 협상 주제와 전술이 모두 우위에 있으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36. ㉠과 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협상 대표의 말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어제 회의에서 당신들이 제시한 협상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 협상을 속개하도록 합시다.”
- ② “이제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될 것 같지 않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③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의제는 단독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 있을 다른 협상과 관련지어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 ④ “당신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 국내 여론이 매우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현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 ⑤ “우리의 산업 구조에서 이 분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산업에 피해가 가는 결과가 초래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37.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에 비해 협상 전술이 훨씬 더 중요하겠군.
- ② 약소국에서는 강대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잘 육성해야 하겠군.
- ③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야겠군.
- ④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협상 대표에게 무조건 책임을 추궁할 일은 아니군.
- ⑤ 강대국이라고 해서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결과만 얻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나,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동맹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이며 이는 동맹관계 유지의 근간이 된다.

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 나눌 수 있다. 먼저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 중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에 동맹국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 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 즉 방위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 낮고, 다음으로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 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동맹 중에서 73개는 방위조약, 39개는 중립조약, 36개는 협상의 형태인데,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115개월, 중립조약이 94개월, 협상은 68개월 정도였다. 따라서 ㉢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 현실주의자들과 ㉤ 구성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며 국제 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 주체라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므로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 한다.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성주의자들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동맹관계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본다.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 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관계에 주목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상호 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상호 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는데,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 맺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파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의 공조체제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 ③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 ④ 동맹은 국가가 전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맺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 ⑤ 중립조약은 서명국이 속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동맹이다.

3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제 사회의 문제를 ㉣은 힘의 관계에, ㉤은 상호 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 ② 국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은 국가적 이기심, ㉤은 세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③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 상호 협력이, ㉤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동맹이 변화하는 이유를 ㉣은 패권 국가의 출현으로 인한 전쟁으로, ㉤은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았다.
- ⑤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은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은 구성원 간의 고른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국은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한다.

- ① A국이 B국과 동맹을 파기하기 전에는, A국은 B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겠군.
- ② A국이 C국과 동맹을 맺은 후에는, B국과 C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A국은 참전하지 않아야 하겠군.
- ③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구성주의자들은 A국 구성원들이 C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C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구성주의자들은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41.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이 글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단호했다.
- ③ ㉢: 그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이루어 발표 대회에 나갔다.
- ④ ㉣: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 ⑤ ㉤: 나는 그와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 포괄적 합리성과 ㉡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반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 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중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앨리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인식된다.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절차(SOP),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

반을 ㉢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SOP에 부합하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은 ㉣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때 두 모델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이 갖는 의의이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하여 조직 과정 모델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특징을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정책 행위 분석 단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외교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모델의 분석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의 역량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본다.
-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연합체로서의 국가가 선택한 결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단일체로서의 국가가 선택한 결과로 본다.
-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조직의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
- ④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가 효용을 계산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국가가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본다.
- 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은 결과로 본다.

1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행위자의 지식이, ㉡은 행위자의 목적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다.
- ② ㉠은 ㉡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한다고 본다.
- ③ ㉠은 ㉡과 달리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④ ㉡은 ㉠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 때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이다.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B국과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한편 B국의 정보 조직은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지만,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이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 협정 체결 중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단, A국과 B국은 독립 국가이며 국내외의 다른 정치 외교적 상황은 양국의 정책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했다면, 군대의 추가 배치가 이 목적에 대해 가장 큰 효용을 가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이겠군.
-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겠군.
-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평화 협정 체결이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고 분석했더라도, 이 관점에서는 왜 B국이 평화 협정 체결을 정책 행위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겠군.
- ④ 조직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목적이 무엇인가보다는 어떻게 그 정책 행위가 선택되었는가를 분석하겠군.
- ⑤ 조직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이 평화 협정 체결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면, 관련 조직들의 SOP 및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B국의 정책 행위를 설명하겠군.

2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 ② 주말에 바둑을 두는 것이 취미이다.
- ③ 앞의 사람과 간격을 두며 줄을 섰다.
- ④ 위험물을 여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 ⑤ 그 사건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다.